

# 韓 경제 '고유가 장기화' 먹구름... 성장률 1.9% 붕괴 가능성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충격 확산  
'추경 대응·반도체 호황' 완충 작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는 선 그어

앨버트 파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9%를 밑도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 관련 성장률 하방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ADB는 이번 분석이 공식 전망 수정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둘 아비야드 ADB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앨버트 파크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전망 수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압력을 별도로 분석한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4월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대응이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는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개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당시 전망은 중동 사태가 조기에 안정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후 에너지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부

담이 커졌다는 게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그는 "업데이트된 분석에서 강조한 점은 공급 차질이 더 지속적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분쟁이 끝난 뒤에도 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DB는 새 기준 시나리오에서 올해 유가가 평균 배럴당 96달러, 내년에는 80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했다. 심각한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올해 평균 150달러, 내년 평균 140달러를 기록하고, 최악의 경우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스트레스 분석도 제시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 훼손도 공급 차질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ADB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 설비의 약 16.9%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 일부는 복구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고유가 충격은 비에너지 원자재와 식품 가격으로도 번질 수 있다. ADB 분석에 따르면 2월 말 대비 4월 말 요소 가격은 85.2% 올랐다. 요소와 암모니아 가격 상승은 비료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은 포장

재와 제조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ADB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한 배경에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I는 계속 남아 있을 구조적 변화"라며 "한국은 앞으로도 이 흐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동산 소재와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 붐의 성장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사태는 성장을 낮추고 물가를 높이는 방향의 압력을 만든다"면서도 "한국은 AI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어 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영양

제 21 회

2026

#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VFTF 영양축제 관공재단

## 靑 "선박구출 작전 검토 중"

호르무즈 해협 선박화재 대처 논의  
"선원피해 없어... 원인규명이 먼저"

청와대가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의 대처 방안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검사 등을 위해 조사관을 급파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역 내 정박 중이던 HMM 선박이 외부 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되어 추가 피

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해당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 예정"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는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SNS에 우리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인 규명이 먼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글로벌 IB,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1면 '반도체의 힘...'서 계속

외국계 글로벌 IB들은 한국 증시의 장밋빛 미래를 점친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 코스피 상반기 목표치를 8000으로 제시한 노무라증권에 이어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코스피 목표치를 8000 이상으로 제시했다. JP모건도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까지 제시하며, 한국을 아시아 내

최선호 시장으로 꼽았다.

다만, 반도체 정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경제해야 할 이슈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투자자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영업 마진 상단 근접 인식 ▲소비자 IT 기기(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급감 우려 등을 근거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